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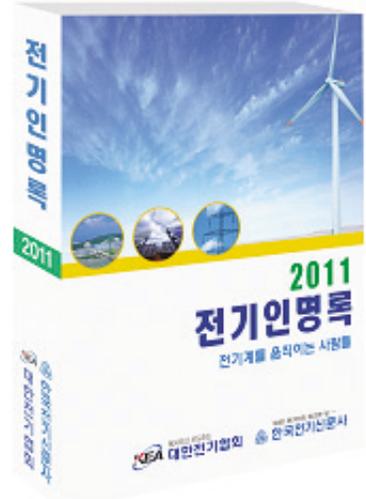
## ● 전기협회, '2011 전기인명록' 발간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우리나라 전기인들의 정보를 집대성한 '2011 전기인명록'을 발간했다.

전력산업계 종사자의 업무편의성 제고와 에너지 관련 업계 상호간의 효율적인 소통강화를 위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인명록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전기에너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 및 분야별 인명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또한 주요기관 및 관련 업·단체 현황과 종사자 전화번호, 직군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편리한 가독성을 바탕으로 업무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명록은 ▲정부기관 ▲국회관련 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그룹사 ▲협·단체 ▲전기협회 회원사 ▲연구기관 ▲전기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협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문의 : 홍보팀 원태식 대리(Tel. 02-3393-7694 / Fax. 02-3393-7699)



## ● 'KEPIC 유지정비 표준 세미나'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9일 한전KPS 본사(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강당에서 'KEPIC 유지정비 표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ASME PCC 등 국제적인 표준을 참조하여 발행한 KEPIC 2010년 판의 사용자들을 위해 전기협회와 한전KPS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요 발표 주제는 ▲압력기기 및 배관 정비 ▲KEPIC의 현황과 적용 ▲발전소 유지정비 기술 동향 ▲볼트체결형 플랜지 조립 ▲수명평가 ▲위험도기반검사(RBI) 계획 등이며, 한전 KPS견학도 병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주요 발전설비의 검사, 평가, 보수에 활용할 유지정비 표준의 이해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 ● 전기협회, '원자력분야 한·중·일 국제표준 워크숍' 개최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원자력분야 국제표준 협력을 위한 '한·중·일 원자력 국제표준 워크숍'을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중·일 간의 국제표준활동에서의 상호 전문가 파견 및 공동제안 등에 대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며, 3국의 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원자력표준현황과 정책방향, 국제표준 제안 현안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각국의 원자력 표준현황과 국제표준화 방향(국가별 발표) ▲한국의 방사선방호 분야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발표, 논의가 이루어졌다.



## ● 전기협회, '201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 실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청소년수련관(중구 수표동 소재) 세미나실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WTO/TBT 협정에 따른 전기설비 설계사례 및 적용 ▲분산형전원의 계통연계 기준(안)에 대한 해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시스템에 대한 해설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해석이 모호한 조문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실무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및 홍보 ▲전기설비의 사고사례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방법 등이었다.



한편, 다음 교육일정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수강 신청은 교육시작 전까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3393-7669)로 하면 된다. KEA

※ 교육일정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